

**[Start]** “인튜베이션!”

나는 간호사를 봤다.

“바이탈 체크! IV 잡고 바로 NS!”

내 호통에 잠시 낮이 나갔던 레지던트와 인턴 그리고 간호사들이 내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된다.

삶과 죽음이 수술대 위에서 펼쳐질 것이니 이곳이야말로 전쟁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는 만삭의 환자를 살폈다. 자칫 산모가 죽게 되면 아이의 목숨도 덩달아 위태해진다.

“야! 안경!”

내가 부른 의사는 그래도 4년 차 치프였지만, 수술실에 들어온 이상 나는 상대가 누구든 막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예, 과장님!”

“환자 신분증을 찾아서 보호자 찾아.”

“예?”

“뭐가 ‘예’야! 찾으려면 찾아, 이 새끼야!”

병원 안에서는 내가 꼴통 욱쟁이로 통한다는 것을 안다.

수술실의 악마, 폭언의 대가 등등 온갖 안 좋은 칭호란 칭호가 붙은 것이 나다.

‘젠장!’

이 전쟁터는 내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다.

항상 그랬듯 서브들이 머뭇거리면 성난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른다.

간호사들은 만삭 환자의 팔에 혈압대를 감고 혈압을 재고 있었고, 또 한 명이 내게 다가와 후두경을 건넸다.

“간호사보다 못한 것들!”

알량한 의대 졸업장을 갖 단 수련의보다 수술실에서 잔뼈가 굵은 간호사들이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환자의 옷 단추를 풀고 있다.

“지금 장난해?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돼? 급하잖아! 시간 없다고!”

좌아악!

나는 미적지근하게 환자의 옷을 벗겨내는 간호사를 비키게 하고 바로 환자의 옷을 찢어 직접 심전도 리드를 부착했다. 허둥지둥 몰려난 간호사는 정맥 주사를 놓았고, 수액이 환자에게 연결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바이탈!”

“BP 70에 펄스 230입니다.”

“젠장!”

[Continue to next page]

[Do not translate] --- ~~메지컬 써전#4~~ ---

내 손에 들린 날카로운 메스를 움직여 환자의 가슴을 옆  
부분을 절개한 후 절개한 부위에 관을 연결했다. 그러자  
관을 통해 검은 피가 꼰렁꼰렁 흘러나왔다. **[Finish]**

“산부인과는 어떻게 됐어!”

“아직입니다.”

“뭐하자는 거야? 가나다! 몰라?”

“예?”

내 질타에 서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기본도 모르냐고!”

산부인과 전문의는 말 그대로 시간 끌기를 한 것이다.

그놈들도 사고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옛 같은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은 거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나 혼자 할 수밖에.

“응급 수술 준비해! 당장!”

“예! 과장님!”

“.....으음!”

그때 눈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지더니 살짝 현기증이 느